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김두섭 (한양대학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생활과 사회활동의 광범한 제약은 출생, 사망, 결혼과 이혼 양상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의 분석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단계에 결혼과 임신의 연기가 광범하게 이루어졌으며, 2020년 말에 출생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결혼 감소는 추후 출생아 수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국제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우 적으며, 2021년 8월 1일 현재 2,098명이다. 지난 3년간 평균 사망자에 비해 두드러진 초과 사망이 계절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모두 코로나19의 직접적 파급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결혼이 연기되고 결혼 의향이 저하하였다. 결혼 건수가 계절에 관계없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혼 건수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출산율이 하락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것이다.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 한국 사회의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청장년과 노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과 사회활동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인구 영역의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한국 인구에 미친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 진행 중이고 가용한 인구자료도 제한적이지만, 2020년 초 이후 한국 인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사회와 인구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동향이 과거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 이혼 건수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결혼 및 출산 의향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분석을 위해 2010년 이후 연도 및 월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 OWID(Our World in Data)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자료와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회조사 원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동향

코로나19의 확산이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 동향에 미친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료의 형태로 포착이 가능하다.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한국 인구의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후 관찰되는 모든 인구 변화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결혼, 출생과 사망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파급효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및 출생 신고의 시점이 음력 신년이나 선호하는 절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감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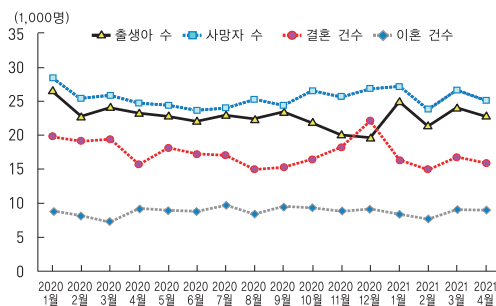
[그림 I-11]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의 월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는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를 보

이며, 월별 편차의 폭이 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망자 수와 이혼 건수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은 임신 기간 10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림 I-11]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10월부터 3개월간 출생아 수가 두드러지게 하락하였다. 그 후 2021년 1월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 출생아 수가 2021년 1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상승추세로의 반전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지난 16개월간 사망자 수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2020년 전반부에 천천히 하락하던 사망자 수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완만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며, 그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겨울에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을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보기는 어

[그림 I-11]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 2020.1.-2021.4.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20-2021.



려우며, 계절적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2020년 12월 말에 917명으로 월평균 77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2020년 2월과 3월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사망자 수는 미미하였다. 결국, 지난 1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보다는 개인 위생의 철저한 관리에 따라 독감 등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 감소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11]에서 결혼 건수는 대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며, 2020년 4월에 현저하게 감소하고 2020년 10-12월에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결혼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제한조치로 인하여 예정했던 결혼식을 연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2020년 4/4분기에 결혼이 증가한 것은 해가 바뀌기 전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계절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11]을 보면, 이혼 건수는 2020년 1-3월에 감소하였고 4월에 다시 평균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 후에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혼 건수가 2020년 초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가정법원이 휴정하여 이혼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결혼, 출생과 사망은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며, [그림 I-11]에서 관찰되는 모든 변화를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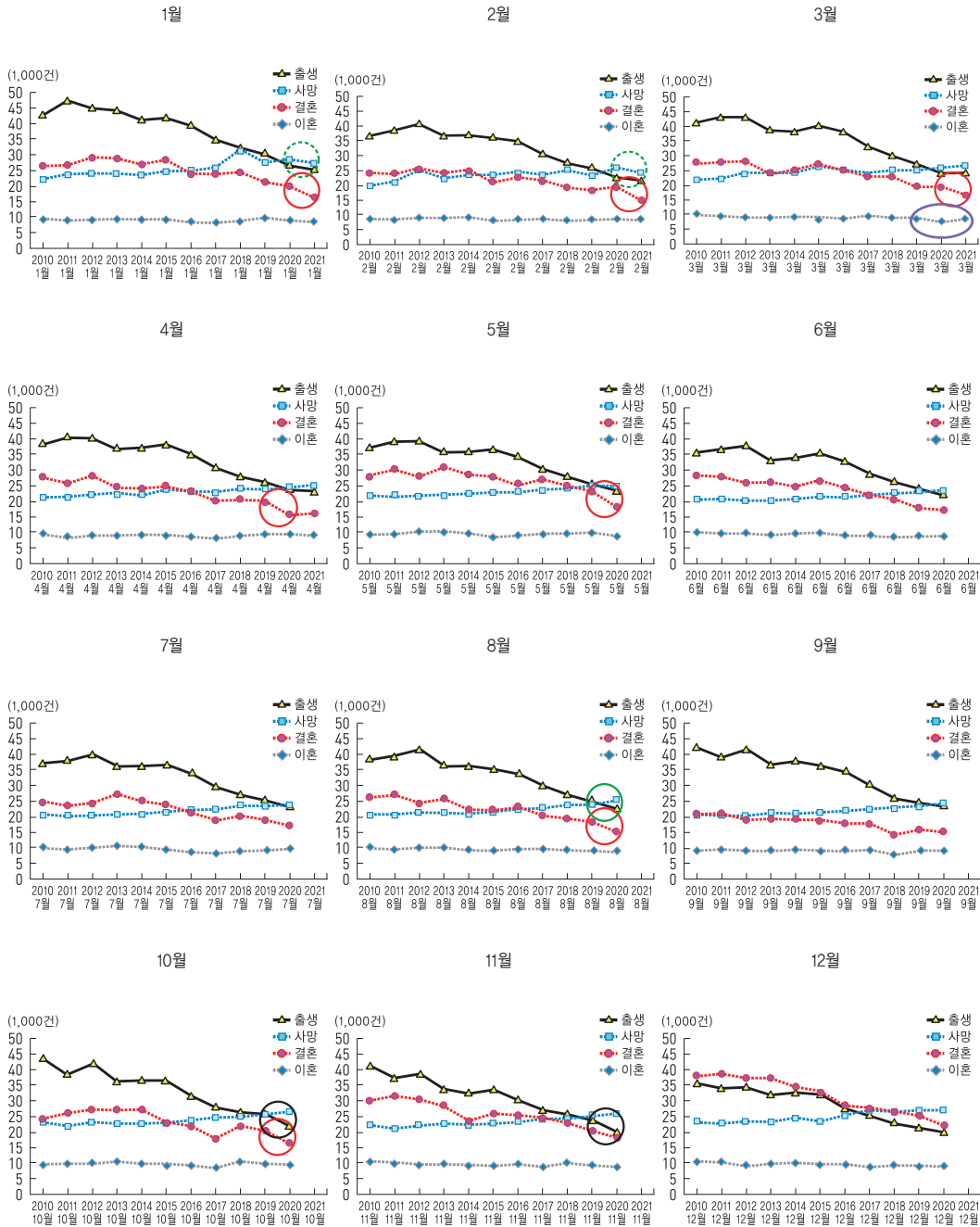
할 수는 없다. 계절적 변동성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매 연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작성한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 지표들의 변화추세가 [그림 I-1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12개 그림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관찰되는 특징적인 양상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그림 I-12]에서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2020년 10월과 11월에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출생아 수의 저하 기울기가 2010년 이후의 전반적 하향추세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12]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2010년 이후 사망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녹색 점선의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2021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년 전에 비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사망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코로나19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림 I-12]를 보면, 계절에 따른 결혼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건수는 2020년 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4월, 5월 8월과 10월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2021년 1-3월에는 감소의 폭이 더욱 깊게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사회활동의 광범한 제한이

[그림 I-12]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 및 이혼 건수의 추이, 2010.1~2021.4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0~2021.



젊은이들의 결혼 연기 또는 기피 경향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이혼신고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신고된 이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3.9%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혼은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림 I-12]에서 보라색 타원으로 표시된 2020년 3월과 2021년 3월에 각각 약간의 감소와 반등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이혼 건수의 의미 있는 변화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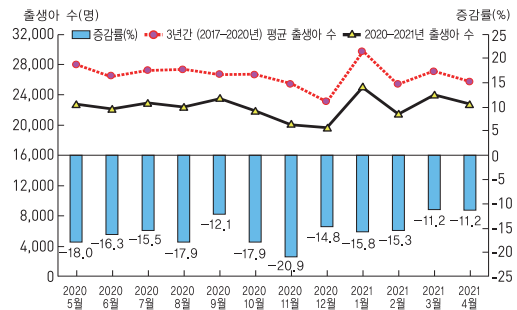
초저출산의 심화

코로나19의 초기단계만 해도 일부에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출산력이 저하하는 ‘2차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저출산의 심화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생아 수의 감소를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출생아 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출생아 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을 살펴본다.

[그림 I-13]을 보면, 최근 1년간 출생아 수가 지난 3년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모든 월별 증감률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2020년

5월, 8월, 10월과 11월에는 출생아 수가 모두 17%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20년 5월과 8월은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이후 10달의 임신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시점이다. 이 시기 출생아 수의 감소는 코로나19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초저출산이 심화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후 2021년 1/4분기까지 하락 폭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림 I-13]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출생아 수 대비 2020-2021년 출생아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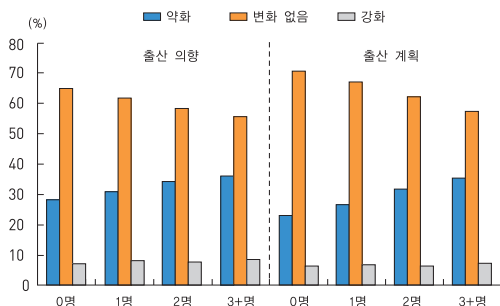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출산은 개인의 출산의향에 따라 임신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획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개인의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은 출산력의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과 11월에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에 출산의향이 약화되어 임신을 연기한 부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결혼 후 3년 이내의

25-28세 여성들이 첫째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연기하고자 했던 성향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판단된다.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25-39세 기혼 여성의 31.2%가 출산의향이 약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임신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응답자도 각각 27.6%와 19.9%에 달했다. [그림 I-14]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의향이 약해지고 출산계획을 미루는 경향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4]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의 변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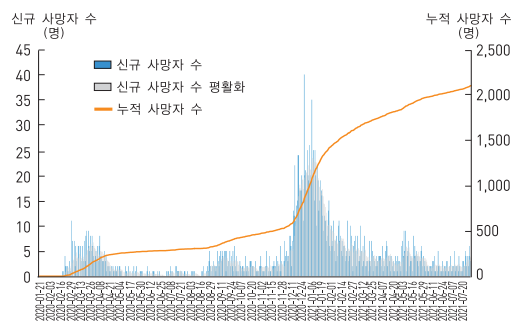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25-3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후, 확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자녀 출산 의향'과 '자녀 출산 계획'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 '변화 없다', '강화되었다', '매우 강화되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 약화는 '매우 약화되었다'와 '약화되었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강화는 '강화되었다'와 '매우 강화되었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의향의 실태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원자료, 2020.

사망자, 치명률 및 초과 사망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누적 사망자는 2021년 7월 31일 현재 2,098명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40.5명 수준으로,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I-15]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사망자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즉, 제1차 확산 시기인 2020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신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제2차 확산이 이루어졌던 2020년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누적 사망자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3차 확산 시기인 2020년 12월 중순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 2월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할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로 흔히 치명률이 사용된다. 치명률은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

[그림 I-15]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 수, 신규 사망자 수 평활화와 누적 사망자 수, 2020.12~2021.7.31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020년 5월 25일 2.4%의 정점에 도달한 후 하향추세로 반전되어 2%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31일 현재 1.05%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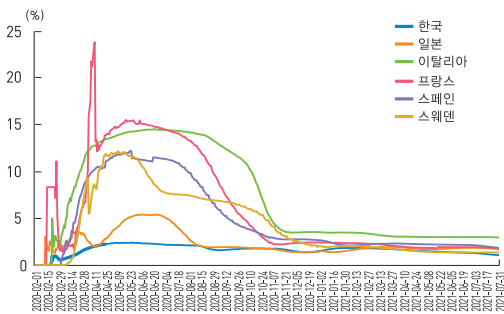
한국의 치명률은, [그림 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주요 유럽 국가의 치명률은 2020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1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치명률은 2021년 7월 31일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2-3% 수준을 나타내며, 전 세계의 평균값은 2.13%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보다 낮으며, 미국의 계절독감으로 인한 치명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코로나19와 연관된 합

병증 또는 간접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의 사망자 증가 추이에서 벗어나는 초과 사망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17]에는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사망자 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사망자 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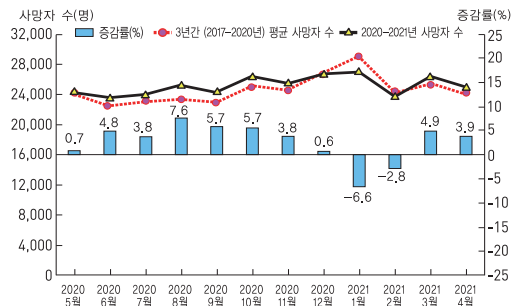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사망자 수는 2020년 5월과 2021년 1월 및 2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같은 시점의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7]에 제시된 증감률을 보면, 2020년 8월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 사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1월과 2월의 사망자 수가 같은 시점의 과거 3년 평균값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흥미롭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개인위생관리와 사회활동 제약, 그리고 독감 등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 감소에

[그림 I-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 추이, 2020.2.1-2021.7.31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림 I-17]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사망자 수 대비 2020-2021년 사망자 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기인하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초과 사망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앞으로 초과 사망을 고령자 연령집단이나 사망원인에 따라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 연령집단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추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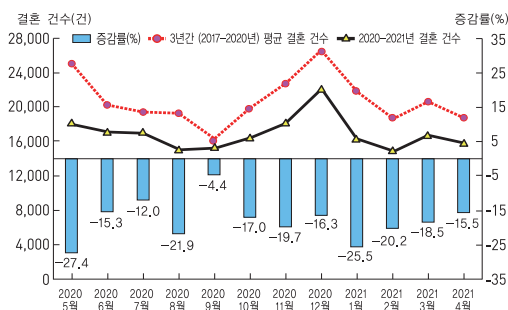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국 인구는 출산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한 결혼적령 인구의 감소와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또는 기피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에 32.9만 건의 혼인이 신고되었으나 2019년에는 23.9만 건으로 2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결혼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2020년에 신고된 결혼 건수는 21.4만 건으로, 이는 2019년에 비해 10.7%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결혼이 감소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계획했던 결혼의 연기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었고, 아울러 집값의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당분간 단념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셋째, 국제이동과 혼인이주의 제한으로 2020년 국제결혼이 2019년보다 35.1% 감소하였다.

[그림 I-18]은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결혼 건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결혼 건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모든 월별 증감률이 음의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2020년 9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의 하락 폭이 12%를 넘는다. 특히 계절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20년 5월과 2021년 1월에는 결혼 건수가 지난 3년 평균값에 비해 각각 27.4%와 25.5% 감소하였다.

[그림 I-18]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결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결혼 건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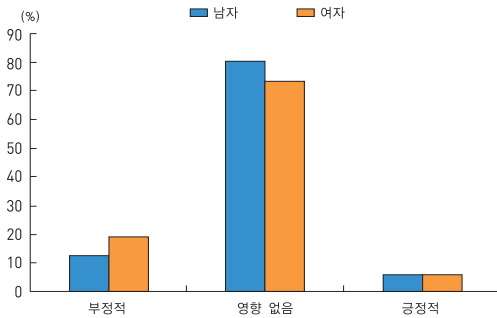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결혼 감소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의향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림 I-19]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30대 남녀 미혼자의 각각 13.0%와 19.6%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 2020



- 주: 1) 전국 미혼 만 3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쪽으로 바뀜', '잠시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바뀜', '아무 영향 없음(동일함)', '잠시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바뀜',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뀜'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 부정적은 '장기적으로', '잠시지만' 부정적으로 바뀜을 합한 응답률이고, 긍정적은 '잠시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뀜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7차 저출산인식조사: 30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원자료, 2020.

결혼 의향의 변화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도 편차를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 계층에 속한 미혼자가 상층의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의향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혼인율의 편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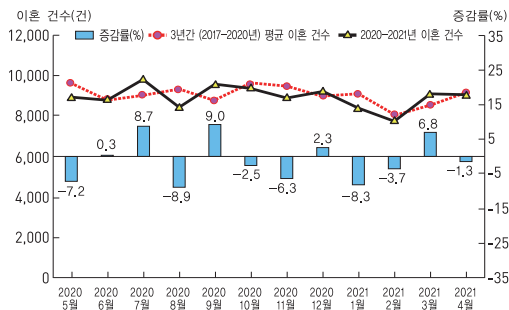
가족관계와 이혼 양상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사회활동의 제약과 재택근무의 광범한 확산으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성을 지닌다. 우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가족관계가 좋아졌을 수 있다. 반대로, 자녀 돌봄과 가사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부간에 충돌이 잦아져서 가족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가족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수, 성역할과 자녀양육 부담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의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면 여성은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혼율이 높아져 2003년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

수)이 3.4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 후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해왔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2와 2.1로 집계되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에 10.7만 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4,30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I-20]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이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이혼 건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이혼은 결혼, 출생이나 사망에 비해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신고자료를 보면, 5월, 10월 및 11월에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2월에는 이혼신고가 적은 경향이 발견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이후 2020년과 2021년의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두 해 모두 2월에 신고된 이혼 건수가 가장 적다. 대체로 음력 설이 포함되거나 귀성과 성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월을 제외하면, 2020-2021년의 월별 이혼 건수는 같은

달의 지난 3년 평균값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I-20]에서 2020-2021년과 지난 3년의 이혼 건수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도 의미 있는 규칙성이나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맺음말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구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초기만 해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출산 수준이 감소하는 '2차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출산력이 하락하였다. 또한, 지난 1년여 한국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진 결혼의 감소는 앞으로 출생아의 초과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의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더욱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현재 집계된 사망률과 치명률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초과 사망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사망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인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결혼, 출생과 사망의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지적하고자 한다. 육아 및 가사노동과 관련한 성 역할 갈등도 더욱 첨예해지고 세대 간 갈등과 함께 민감한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다.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편차와 불평등 및 이에 수반되는 성별, 세대 간 갈등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